

서운영의 '집과 사람'



건물보다 사람이 먼저 보이는 도시

“이런, 제일 중요한 게 빠져 있었어... 건물만 잔뜩 들어차 있을 뿐 사람은 보이지 않잖아. 도면을 그리거나 모형을 만들 때면 항상 사람을 함께 그려 넣으라고, 건물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람이야.”

이러저러 20년 전의 일이다. 나는 그때 건축학과에 갓 입학했던 때라 의욕이 충만해 있었다. 과제물이 산더미처럼 밀려와도 그게 힘든 줄을 모르던 시절, 그 날도 밤을 새워 도면을 그리고 모형을 만들어 학교에 가져갔다. 그게 날아가는 새의 날개를 본 떠 그린 어느 미래 공항의 대합실이었는데, 비 온 뒤 함차가 뻗어나가는 죽순에서 영감을 얻은 미래 도시의 고층 빌딩이었는데 기억이 나지 않지만, 교수님의 한 마디 일갈만은 아직도 가슴에 남아 있다.

나는 크고 화려한 건물만을 잔뜩 그려 갔는데 정작 교수님은 사람이 그려져 있지 않다고, 건물 옆에 사람을 함께 그려 넣으라 해서 건물의 크기가 가늠 되는 거라고 하셨다. 학교 다닐 때 그리던 도면의 축척은 1/100 정도이기 때문에 사람도 1.7cm 정도로 쉽게 그려 넣을 수 있었다.

그러나 졸업을 하고 설계사무소에서 일하면서 건물의 크기와 스케일이 점점

커지기 시작했다. 1/200은 예사요, 1/300, 1/500 때로 1/1000 축척의 도면도 그려보았다. 이렇게 축척이 커질수록 사람의 크기는 개미처럼 점점 작아진다. 어느 사이엔가 사람은 생략하고 그리는 것이 습관처럼 되어 갔고, 그러다 보니 사람은 보지 않고 건물만 보기 시작했다.

‘아름다운 도시란 어떤 도시인가’라는 질문을 자주 받는다. 도시가 아름답기 위해서 그 도시의 표정이 밝아야 하고, 도시의 표정이 밝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행동이 밝고 활기차야 한다. 일례로 1980년대 학생시위가 한창이었을 때 서울 광화문 앞 광장에는 전경과 사복경찰이 삼엄한 경비를 서고 있었다.

그러나 요즘 그곳은 보행자 광장으로 조성되어 시민들의 휴식처가 되고 있다. 잠시 산책을 나온 근처의 직장인, 아이를 동반한 주부는 물론 때론 아마추어 기수의 노레마당이 펼쳐 지기도 한다. 당시와 비교해 그곳에 새롭고 화려한 건물이 들어선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다만, 사회환경이 변하고 사람들의 행위가 바뀌면서 아름다운 거리가 된 것이다. 이때 새로 조성된 시민광장은 도시기반시설에 해당하는 스트리트 퍼니처(street furniture)라 할

수 있다.

주택의 방마다 적절한 가구가 갖추어져 있어야 가정이 안락해지는 것처럼, 거리에도 가로등, 가로수, 화단, 벤치, 음수대, 분수, 화장실, 작은 쉼터공원 등 적절한 시설들이 곳곳에 갖추어져 있어야 안락한 도시가 된다. 하지만 그곳에 아스팔트 도로 외에 아무것도 없다면 자동차만이 지나다니는 황량한 길일 뿐이다. 주변에 화단과 벤치, 분수대가 있다면 누군가 그곳에 머물 것이며, 머무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밝은 표정의 아름다운 거리가 될 것이다.

또한, 스트리트 퍼니처는 거리의 건물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어야 안정적이다. 건물과 거리가 급격히 단절된 것이 아니라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아름다운 건물이 된다. 요즘 카페는 거리를 향해 작은 테이블을 몇 개 내어 놓은 곳이 많다. 야외 테이블에 앉은 사람과 거리를 걷는 사람은 서로 자연스러운 시선 교류가 가능하며, 그래서 거리를 걷다가도 문득 차를 마시고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한다.

우리의 전통건축에서 가장 섬세한 건 실내공간과 야외공간을 유기적으로 이어

주기 때문이다. 전통건축은 수돗가, 장독대, 작은 꽃밭 등이 오밀조밀 마련된 안마당이 있어 이곳이 생활의 중심공간이 된다. 그리고 안마당 주변으로 뒷마루가 둘러쳐져 있어 비 오는 날에도 뒷마루에 앉아 마당을 내려다보기 좋다.

수돗가, 장독대, 뒷마루 등(스트리트 퍼니처)이 건물(뒷마루와 텃밭)과 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마당에서 세수를 하고 꽃밭을 돌보며 바람을 쐬 수 있다. 그리고 이를 현대도시의 대청문물에 확대시켜 보아도 그대로 적용된다.

도시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며 그 도시의 첫인상을 결정하는 것은, 즉 제일선(第一線)에서 있어야 하는 것은 건물이 아닌 사람들의 행위이다. 제이선(第二線)에는 그러한 사람들의 행위가 일어나도록 도심기반시설 즉 스트리트 퍼니처가 있어야 하며, 끝으로 제삼선(第三線)에 물러나 있어야 할 것이 건물이다.

그런데 그 삼선에 물러나 있어야 할 건물이 제일선으로 나올 때 사람은 설 자리를 잃는다. 사람은 더 이상 보이지 않고 건물만이 보이는 도시가 되는 것이다. 이십여 년 전 내가 처음 건축을 공부할 때 저지른 실수가 바로 그것이었다.

종교칼럼



김성호 장흥 보림사 주지

익은 것을 설게 합시다

는 은빛세계를 이루고 흔적없이 사라집니다. 이렇게 하루를 살고 어느덧 한 해를 보내면 사계절 언제나 좋은 날이 될 것입니다.

동지(오는 22일)가 며칠 남지 않았습다. 절마다 새해 달력을 나누며 한해를 무사히 보내고 광명의 새해를 맞이하는 기도가 한창입니다. 조사 스님의 말씀에 ‘익은 것은 설게 하고 설은 것은 익게 하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세월은 잠으로 무상하여 화살처럼 빠르고 지나간 시간이 늘 아쉬웁니다. 오래 묵어 익은 습관들을 버리고 새로운 습관을 길들인다는 것이 참으로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깨달음이란 묵은 악습을 버리는 것이지 새로이 얻는 것은 없다고 했습니다.

조상님들은 동지를 맞아 오래 묵은 습관, 우울증과 같은 어두운 기운들을 베풀 끝애 몰아세웠습니다. 그리고 붉은 팔죽을 뿌려 쫓아내는 벽사의식(귀신을 물리치는 의식)을 통해서 한해를 마무리했습니다. 수행자는 번뇌가 일어나면 바로 알아

차린 뒤에 본래 청정한 성품으로 회광반조(回光返照·빛을 돌이켜 거꾸로 비추다) 하였습니다. 그러면 참마음이라는 용광로가 드러나는데 여기에 일체 묵은 습관들을 녹여내고, 새해와 묵은 해의 분별을 내려놓아 언제나 호시절을 누웠습니다.

어제는 한때 치열하게 수련회를 이끌며 수행했던 섬에 다녀왔습니다. 모처럼 물들 해변을 한가롭게 거닐다가 가부좌를 틀고 앉아서 해조음(海潮音)을 듣노라니 지난 시절이 밀물처럼 들어왔다가 썰물처럼 밀려갔습니다. 해조음은 어머니의 자장가처럼 세상의 갈등과 아픔을 치료해 줍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은 해조음이 들리는 바닷가에 상주하며 세상의 모든 소리를 듣고 달려가서 아무런짐의 자비행을 근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세월호 참사라는 큰 아픔이 있어 모두가 참으로 어렵고 힘든 한해였습니다. 그동안 익은 습관과 낡은 관행이만 들어낸 결과였으니 모두가 한 몸이라는 대자비심을 내어 매사에 살얼음을 밟듯

이 해야겠습니다. 새해에는 바닷길이 더욱 순조로워 아무 탈이 없기를 발원해 봅시다.

내년은 올미년 푸른 양의 해라고 합니다. 푸른색은 진취적이고 매사에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양은 성질이 온순하여 무리를 지어 사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양피해의 사람은 단체생활에서 성실하고 화합하는 성향이 강하다고 합니다.

한편, 양은 신을 위한 제물로 쓰였던 동물로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몸을 버린 숭고한 희생정신을 상징하는 동물입니다. 세상살이는 주고 받는 행위를 통해서 은혜와 원한 두 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은혜로운 관계가 원한으로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나와 너가 둘이 아니라는 성인의 가르침을 믿어야 합니다.

새해는 순한 양처럼 절대 사람과 헌신의 보살핌을 통해서 세상의 아픔과 하나가 되도록 더욱 정진할 것을 다짐하면서 한해를 마무리해봅니다.

기고



정기연 전 영암 신북초등학교 교장

있을 때 아껴 쓰고, 불우 이웃을 돕자

싶어 동생에게 과자를 달라니까 동생은 형에게 “형은 있을 때 아껴먹지, 왜 나에게 주라고 해?” 하면서도 과자를 나누어 먹었다. 그 후로는 형제가 다투어 아껴먹고 소모품을 아껴 썼다는 이야기가 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가진 것이 생기고 그것은 써서 없어지게 된다. 있을 때 아껴 쓰면 오래 쓸 수 있고 보람 있게 남을 도울 수 있다. 남을 도우려면 있을 때 아껴 쓰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부자들의 공통된 습관은 있을 때 아껴 쓰는 습관이다. 아껴 써야 하는 것은 시간과 돈과 물건이다. 하루의 시간은 누구나 똑같이 24시간을 하느님께서 주었는데 시간을 아껴 쓰는 사람은 시간표를 만들어 계획적으로 쓰고 있으며 시간을 투자해 결과물을 남긴다. 시간을 투자해 일한 결과는 시간과 결과물로 바꾼 것이다. 일한 결과물이 없다면 시간을 아껴쓰지 못한 것이다. 돈은 시간과 노동을 투자해 벌어들이며 벌어들인 돈을 아껴 쓰고 모으고, 늘리고, 지키고, 베푸는 과정을 거치며 돈이 순환한다. 돈을 많이 벌지만 아껴 쓰고 모아야지 모이지 않으면 적게 벌어도 조금이라도 모은 사람이 돈을 더 많이 번 것이다. 우리가 쓰는 여러 가지 물건은 소모품인 것이

많다. 소모품을 아껴쓰는 것은 돈을 버는 것이다. 70년대 우리나라가 가난에서 벗어나려고 새마을운동을 했고 국민은 근검 자조 협동의 정신으로 부지런히 일해 아껴 쓰고 저축을 장려했으며 세마를 금고가 생겼다. 이제 우리나라는 국민소득 2만 4000불 시대라지만, 국민의 생활은 크게 윤택해진 것은 없고 빈부의 차가 심하다. 부모가 열심히 일해 모아놓는 것이 집안의 재산이다.

모아놓은 것을 오래 쓰려면 있을 때 아껴 써야지 다 소모가 된 뒤에 좀 더 아낄 것을 후회해도 때는 이미 늦은 것이다. 우리나라는 부존자원이 없으므로 원자재를 수입해 선진 된 기술로 상품을 만들어 수출하고 있다. 무역하여 벌어들인 돈이나 개인이 직업에서 벌어들인 돈은 있을 때 아껴 써야 한다. 언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므로 돈을 저금해야 하는 데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저축교육을 하지 않아 문 제다. 벌어들인 만큼 많이 쓰고 저축이 없다면 불확실한 미래에 초라하고 불행하게 된다. 있을 때 아껴쓰는 습관을 길러야 하며 학교나 가정에서 과소비를 부추기지 말고 아껴쓰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있을 때 좀더 모으기처럼 조금씩 아껴쓰

면 그것이 모여 나를 돕고 이웃을 도울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

우리가 생활하는 데 있을 때는 소중함을 모르지만 없을 때는 후회하게 된다. 그러므로 좀더 모으기 정신을 실천하여 밖에서도 벌어들이지만, 안에서 씀씀이를 잘해 조금씩 벌어들인 것으로 보람있게 쓰는 습관을 길렀으면 한다. 우리나라가 경제선진국이 되었지만, 기초는 세마운 동에서 비롯한 근면 자조 협동과 창의 정신에 있음을 알아야 하고 기초를 잊어버린 과소비가 벌어들이고 있는 안 된다. 자연 과학이 기초과학을 충실히 교육해야 하듯이 사회과학에서는 기초질서교육을 철저히 해서 국민이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거기에 맞는 생활을 해야 한다. 부존자원이 없고 원자재를 수입해 선진기술집약의 상품을 만들어 수출하는 우리나라는, 후진국이 우리 기술에 접근하고 있는데 일 시작으로 앞서고 가진 자가 되었다고 저축 없이 과소비해서는 안 된다.

기업은 국제사회에서 앞서 가는 기술 개발과 시설투자에 힘써야 하고 국민은 독일국민처럼 검소하고 실속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 있을 때 아껴쓰고 조금씩 꾸준히 모아 불우이웃을 돕자.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십시오.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0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96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社說

문화전당 이제 개관작업에 박차 가하라

내년 9월에 문을 여는 아시아문화전당이 지역민의 바람대로 국가에서 운영하는 쪽으로 정리가 될 것 같다. 국가 소속에 예산도 안정적으로 지원받는 기틀을 마련, 전당 개관과 세계적인 복합문화공간으로 발돋움하는데 정진호가 커졌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위는 17일 박해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문화전당은 국가 소속기관 이고 국가가 재정을 지원하며 일부 위탁 매체가 지어질 전망이다. 지역민의 여망을 담은 법안을 발의하고 통과를 위해 탐철민 박 의원, 지역 국회의원, 광

주시와 관련 기관단체의 노력이 합쳐진 값진 성과라 할 수 있다.

본회의 통과까지 과정이 남아있긴 하지만 이제 전당인력 구성과 콘텐츠 구축 등 개관작업에 박차를 가할 때다. 먼저 전당 필수 운영인력 400여 명은 전문성과 행정력 등 객관적인 능력을 평가해 투명하게 선발해야 한다.

‘육상육’이 우려되는 문화부 소속 추진단과 아시아문화개발원, 문화전당 3개 기관의 권한이나 임무도 명확하게 결론을 낼 필요가 있다. 모든 기구들이 군림하거나 권한을 놓고 대립하는 자세를 버리고 겹겹이를 시작하는 문화전당의 위상확립에 매진해야 한다.

아시아문화의 진수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명품 콘텐츠 구축도 중요하다. 단순히 채워넣는 수준으로 는 안 된다. 세계적인 전문기관과 인물을 대거 참여시켜 공연·전시에서부터 문화산업, 관광에 이르기까지 최고의 브랜드를 생산해야 할 것이다.

전남권 잇단 폭설피해 대비책 서둘러야

지난 16일 밤부터 17일까지 전남 서부권에 눈폭탄이 쏟아지면서 피해가 잇따랐다. 초·중학교가 대거 휴교를 하는가 하면 정전으로 인해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목포에는 지난 16일 밤부터 17일 오후 1시까지 33cm의 눈이 쌓였고, 완도에도 23.2cm가 내려 최고의 적설량을 기록했다. 목포는 기상관측이 시작된 이래 55년 만에, 완도는 44년 만이라고 한다.

이에 따라 목포와 완도, 영광 등 전남 서부권 9개 시·군 초·중학교 122곳이 17일 하루 휴교를 실시했다. 17일 새벽 1시18분께에는 해남에서 신안 안좌도를 잇는 송전선로가 폭설로 두절돼 해남군 화원·문내면 1만4000가구, 신안군 안좌·팔금·신의·하의·비금·도초면 2만 가구 등 3만7000가구가 정전됐다. 이후 새벽 5시25분께 전기가 공급되면서 주민들이 4시간 동안 어둠 속 추위에 떨어야 했다.

금년 겨울은 매서운 한파에다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기상청은 예보한 바 있다. 폭설이 쏟아지면 도로가 마비되고 비닐하우스, 축사 등이 눈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 붕괴 우려가 커진다. 양식장은 폭설로 정전이 될 경우 산소 공급을 못해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할 수도 있다. 한파가 계속되면 수도관 동파나 노령층의 심장마비 등 위험도 높아진다.

따라서 지자체와 농·어가, 각 가정에서 각별한 대비와 주의가 요구된다. 전남도와 일선 시군은 먼저 도로가 마비되지 않도록 상시 동원할 수 있는 제설 인력과 장비를 확보해야 하며 농·어가 피해에 대비, 지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기상청 역시 재해에 선제 대응할 수 있도록 완벽한 예보가 필요하다. 한전도 불시 정전이 예사인 만큼 서둘러 복구할 수 있는 체계를 강구해야 한다. 뺄히 예견되는, 반복되는 재해를 방지한 다면 화만 키우게 될 뿐이다.

無等鼓

레이디 가가는 2400만 장의 음반과 1억 2500만 장의 싱글 판매고를 올린 세계적 스타다.

그녀는 과격적인 패션으로도 유명하다. 엽기 패션의 압권은 MTV 시상식에 입고 나온 ‘생고기 드레스’였을 것이다. “나는 지구상에서 가장 비관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라고 밝힌 가가는 “오늘 밤 우리가 믿는 것이나 권리를 위해 싸우지 않는다면 머지 않아 우리 뼈에 붙어 있는 살과 같은 신체가 될 것”이라고 드레스의 미를 설명했다.

레드 카펫

생고기 드레스는 그 해 뉴욕타임스가 뽑은 ‘올해의 아이디어’에 선정되기도 했다.

2년 전 내한 콘서트 때 보여줬던 완벽 한 무대는 “패션에서 음악의 영감을 얻는다”는 그의 발언을 증명하고도 남았다.

2011년 사우스 캐롤라이나 대학 매튜 교수는 ‘레이디 가가와 명성의 사회학’ 강의를 진행했다. 사람들의 편견을 깨고 시각적인 효과를 통해 시선을 끄는 특별한 행보가 학문으로 적합할 것 같았다는 게 개설 이유였다.

스타들이 드레스를 입고 미를 과시하는 레드 카펫은 이제 대중들에게 익숙한 행사가 됐다. 레드 카펫의 대명사는

아카데미 시상식이다. 유명 디자이너가 레드 카펫 드레스를 준비한 첫 사례는 1951년 33회 시상식의 크리스찬 디오르와 마를레네 디트리히로 알려졌다.

향상 지방시의 의상을 입었던 오드리 헵번이 ‘로마의 휴일’로 여우주연상을 수상한 후 찍은 사진은 지금 봐도 참 아름답다. ‘화니컬’로 여우주연상을 수상한 바브라 스트라이젠드는 영망이가 보이는 망사 정장을 입어 화제가 됐다. 뷁 육은 백조 한마리를 통째로 질친 듯한 의상을 입고 나왔다.

최근 국내에도 레드 카펫 행사가 보편화됐다. 한때, 언제부

턴가 우아함과 아름다운 대신 ‘노출’에 포커스를 맞추는 일이 많아졌다. 급기야 올해 부산국제영화제 측은 노출금지령을 내리기도 했다.

17일 열린 청룡영화상에서 한 배우가 선보인 시스루 의상은 지금까지 노출 의상을 무색하게 만들어버렸다. 이를 내내 포털 검색어 상위권에 랭크되며 화제의 중심에 섰다.

뜨기 위해 ‘노출을 위한 노출’을 감행한 무용 배우의 발바둥이 안쓰럽다. 주객이 전도된 레드 카펫에 입맞도 쓰는 /김미은 문화부장 mekim@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창·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申港樂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501-710)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32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생활부 2200-661	< F A X 222-8005 >	< F A X 222-0195 >
정치부 2200-642	여론매체부 2200-696	광고개발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대표 FAX 222-4918)	체육부 2200-697	< F A X 227-9500 >	< F A X 227-9500 >
사회부 2200-663	사진부 2200-693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대표 FAX 222-4267)	조사부 2200-571	프로젝트팀 2200-555	< F A X 02-773-9335 >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